

교환학생 수기

2011년 2학기 동안 Canada Vancouver에 있는 **Langara college**에 교환 학생을 다녀온 08학번 최상은입니다.

교환학생을 가기 전 준비한 것

TOEIC 시험도 준비하기 때문에 항상 문법을 공부하지만, 제대로 문법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법에만 집중해서 이거라도 기억하자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단어도 잘 기억을 못 하는지라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않고 예문을 여러 개 찾아 복사해놓고 계속 반복해서 보는 식으로 기억하려 했습니다. 대화를 할 때는 문법은 크게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작문 외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파견 전 학기에 전공 과목 중 ‘관광 가이드 영어’라는 것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발음 교정 위주로 수업을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방학 동안 BBC Learning English 사이트에 있는 발음 관련 영상을 보면서 확실한 발음 차이를 주지하고 파견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억양이 심하지 않고 발음이 좋은 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현지에서 영어를 잘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오직 발음 때문이었습니다.

현지에 파견 후 알아보기에는 불안해서 가기 전에 Vancouver의 대중 교통 시스템이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블로그 검색 만으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특히 ‘우벤유’ 카페에서 좋은 정보가 많았습니다. 비자 신용 카드만 있으면 현금도 인출할 수 있고, 짧은 유학 기간이라면 이득인 임대 휴대폰도 그 카페를 통해 빌렸습니다. 아주 싼 값에 국제전화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연수 동안 어떤 면에 집중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 놓았습니다. 영어로 제대로 된 글을 쓰는 것이 우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을 때 작문에 집중해서 더 나은 실력을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 곳 저 곳 여행을 다니면서 Canada의 문화를 느끼려는 목표도 있었고, 공부만 하기보다 친구를 많이 사귀려는 목표도 있었습니다.

교환학생 파견 기간 동안

반 편성 시험과 같은 Placement test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없이 보게 되었는데 아무것도 몰라도 문제 될 것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수준의 반에 들어가야 맞는지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별다른 부담 없이 봤고,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부담스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수업은 적으면 12명에서 많으면 18명 정도 학생이 한 반에서 자주 토론을 하는 식이었습니다. 출석 점수나 시험 점수에 포함되는 시험을 자주 보았는데 예고 없이 보는 경우도 있고, 과제도 하루 하루 나오는지라 결석은 절대 하지 않는 게 유리했습니다. 큰 프로젝트는 소셜 분석, 포스터 그룹 과제, 에세이 작문인데 대학교를 다니면서 하던 것에 비하면 많이 간단한 축에 속하기 때문에 단지 영어로 한다는 것 외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수업하는 동안 문제 되는 부분을 담당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지적해주어서 얻은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부분이면서 그래도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친구를 사귀는 면이었습니다. 처음 가고 한동안 제대로 말을 시키지 않았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같은 반 아이들을 시작으로, 전혀 모르는 같은 학교 학생에게도 말을 걸면서 하나 둘씩 학교 밖에서 만나 볼 수 있는 친구들을 늘려갔습니다. 의외로 아무렇지도 않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서 왜 그렇게 고민을 했는지 후회될 정도였습니다. 실패한 부분은, 그러다 오히려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 유학생들과 너무 친해져서 나중에는 너무 한국인들과 친해졌다는 것입니다. 영어를 하는 시작이 줄어드는 건 문제였지만,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나 곤란한 일이 생겼는데 영어로 정확하게 물어보기 힘들 경우는 큰 도움이었습니다.

운이 좋아서 학교를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좋은 위치에 있는 홈스테이 집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홈스테이를 한 경험이 오래된 가정인지라 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 쪽 가정에서도 제가 불편하지 않게 신경 써 주었고 저도 안 좋은 이미지는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파견 시작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데 나온 내용을 참고해 행동했습니다. 음식을 가리는 편도 아니고, 욕실 문화와 같은 한국과 많이 다른 부분에 있어 하나씩 배워간다는 자세로 불평 없이 이용하는 지라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 친구 집에서 자거나 1박 2일로 여행을 가는 경우에도 단순히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연락만 하면 되고 굳이 무엇을 하는지 조목조목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에 큰 부담도 없었습니다. 또한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 생기는 문제나, 은행이나 대중 교통 이용 등 살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물어보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과제를 하며 막히는 부분을 물어보면 문법 문제 등 세세한 면에서 선생님이 일일이 가르쳐 주기 힘든 부분도 세심하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른 교환학생 학교에 비해 Langara college는 파견 기간이 약 한 학기 동안으로 굉장히 짧아, 적응이 될만할 때 한국에 돌아와야만 한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제대로 못한 점도 많고, 가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잘 한 것도 많았습니다. 수기를 마감하는 지금은 다녀온 후 약 한 달 넘게 지난 후로 좀 더 객관적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후회되는 일이나 잘못된 일이 아무리 많았어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돌아가 머물러 보고 싶습니다. 요즘은 아무나 유학을 간다고 하지만 제겐 흔치 않았던 기회인 캐나다로의 유학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영어를 배울 수 있는데 굳이 돈 들여서 밖으로 나가는 이유가 어디 있냐, 한국에서만 공부 해도 충분히 영어를 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분명히 사실이지만 굳이 외국어 때문이 아니라, 인생 경험을 위해 해외를 향한 여행이나 유학 경험은 꼭 겪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가기 전에 각자에게 맞는 목표를 잘 세우고 꼭 달성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